

광주시청 한정미 여자육상 400m '새 강자'



육상 400m에서 우승한 광주시청 한정미.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전국실업육상 우승...10개 대회 연속 석권 김지은 두차례나 꺾어 광주시청 김태효 남자 100m·김명하 멀리뛰기에서 은메달 추가

광주시청 한정미(27)가 대한민국 육상 400m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0개 대회 400m를 석권한 김지은(31·전북개발공사)을 결승에서 두 차례나 꺾었다. 한정미는 23일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예천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 400m 우승을 차지했다. 한정미는 이날 여자 400m 결승에서 55초98을 기록, 김지은(전북개발공사·56초52)을 제치고 가장 먼저 골인했다. 그는 지난 5일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무엇보다 국내 400m 1인자 김지은을 두차례나

따돌렸다. KBS배에서도 김지은(57초28)을 제치고 57초00으로 우승했던 한정미는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여자 400m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김지은은 지난해 4월 제51회 전국중별육상경기 선수권 우승을 시작으로, 5월 4일 전국실업대회, 5월 24일 익산 실업대회, 6월 2일 KBS배, 6월 22일 전국육상선수권, 8월 30일 전국실업챔피언십, 9월 6일 전국실업단체대항에 이어 전국체전 등 10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최강자다. 한정미는 김지은에 가로 막혀 번번히 좌절했다. 지난해 제33회 전국실업단체대항육상경기대회 여자부 400m 결승에서 56초81로 이지는(전북개발공사·56초26)에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한정미가 KBS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며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김태효와 김명하도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태효는 남자 100m에서 10초39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1위는 광주시청 소속이었다가 현재 군북부중인 모일환(국군체육부대)이 10초37로 우승했다. 남자 멀리뛰기에서는 김명하가 7m53을 기록, 충주시청 성진석(7m7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심재용 감독은 "부상 중인 선수들이 충실하게 재활훈련을 하고 다른 선수들도 몸을 다진다면 전국체전 등 하반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 기량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장애인체전 오늘 완도서 개막

26일까지 3000여명 화합 한마당 게이트볼·골볼 등 21개 종목 겨뤄 스포츠재활체험관 등 운영도

전남 장애인체육인의 화합 대축제인 제31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완도에서 열린다. 3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를 구호로 24일부터 26일까지 완도에서 치러진다. 22개 시군 3000여명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게이트볼, 골볼, 배구 등 2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올해 대회는 장애인체육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까지 시범종목이었던 테니스, 펜싱, 승마, 댄스스포츠, 양궁, 태권도 등 6개 종목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 대회기간 동안 정해진스포츠센터 야외 체험부스, 스포츠재활체험관, 휠체어보장구 경기용휠체어 수리센터, 해양치유산업홍보관이 운영된다. 개최식 식전 행사에서는 완도문화원 가리포예술단의 아랑고고장구 공연, 플루티스트 나리의 팝 플



지난해 열린 제30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

〈전남도체육회 제공〉

루트 공연, 라틴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식후에는 진성, 허찬미, 지원이 등 인기 가수들이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다. 김영록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전남도지사)은 "전남 장애인체육인의 축제의 장인 '제31회 전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청정 바다수도 완도에서 열

려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체전이 14만 전남 장애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은 오는 26일 완도군 정해진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민재 4번째 백두장사 등극 영암민속씨름단 단체전 우승

2023 보은장사씨름대회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김민재는 23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판 3승제)에서 서남근(수원특례시청)을 3-0으로 꺾고 백두장사에 등극했다. 그는 개인통산 4번째 백두장사에 등극했다. 8강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장성우(MG새마을금고씨름단)를 2-1로 누른 김민재는 4강에서 최성민(태안군청)을 2-1로 제치고 백두장사 결정전에 올랐다. 결정전에 오른 김민재의 마지막 상대는 서남근이었다. 김민재는 들배지기를 성공하며 서전을 장식했다. 이어 두 번째 판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들배지기를 다시 한번 성공시키며 2-0으로 기세를 이었다. 마지막 승부에서 김민재는 밀어치기로 서남근을 누르고 최종스코어 3-0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부 단체전 결승(팀 간 7전 4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울주군청을 접전 끝에 4-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장영진, 최정만, 박수훈, 김민재, 박권익, 최영원, 차민수로 구성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통산 4번째 백두장사에 등극한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FA컵 16강전 승리로 반전 노린다

오늘 서울이랜드와 원정 경기 이음뜰 복귀 등 무승 탈출 기대

광주FC가 '무패행진' 중인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무승부진' 탈출에 나선다. 광주는 24일 오후 7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FC를 상대로 2023 하나원큐 FA컵 4라운드 16강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승리가 절실하다. 광주는 지난 20일 인천유나이티드의 원정경기에서 '캡틴' 안영규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 무승부를 기록, 7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빠졌다. 아쉬움 속에도 연패를 끊고 승점 1점을 더한 것은 반갑다. 광주는 서울 원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위기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은 필수다. 20일 인천원정에 이어 24일 서울로 가는 광주는 28일에는 수

원FC와 15라운드 원정 대결을 갖는다. 백백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하는 동시에 많은 경기에서 나가지 못한 선수들의 기량도 점검할 방침이다. 로테이션 가동에 문제가 없다. 이근희와 김재봉, 아론, 김승우 등 기존 선수와 함께 신창무, 오후성, 김경재, 김동국 등 올 시즌 합류한 선수들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하면서 어필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반가운 부상 복귀도 예정됐다. 시즌 전 연습경기에서 쇄골 골절 부상을 당했던 '황금 왼발' 이음뜰이 부상을 딛고 그라운드에 나설 준비를 끝냈다. 안정된 수비와 날카로운 원발력을 보유한 이음뜰은 경험 많은 베테랑이기도 하다. 터줏대감의 복귀는 광주의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에 큰 힘을 불

어넣어 줄 전망이다. FA컵 16강전에서 만나는 서울이랜드는 5승 2무 6패로 K리그2 8위.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윤보상과 김원식, 김정환, 유정완 등 기존 선수에 반도안, 이상민, 이시현 등 알짜배기 자원이 더해져 강한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공격수 호난은 2경기 연속 2득점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감을 과시한다. 역대전적은 광주가 압도적인 우위다. 광주는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9승 3무의 '무패행진' 중이다. 지난 시즌 마지막 원정 맞대결에서도 4-0 대승을 거뒀다. 서울이랜드에 강했던 광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압박전술을 구사, 상대 골문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서울 원정에서 기다렸던 승리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보은장사씨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버 데이
2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버 데이
3관	인어공주, 아기공룡 둘리 : 얼음별 대모험 리마스터링
4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5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버 데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6관	인어공주
9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7관	씨네카를
극장판	광주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존 워 4, 드림
8관	씨네카를
스즈메의 문단속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스즈메의 문단속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오료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